

일본의 계란지치(指値)동운 근황

송 정 택
<한국가금협회 전무이사>

본지 지난 2월호에 일본양계업계의 난가확보 운동의 전말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다. 그들은 금년 후반기부터는 kg당 175원 이하는 절대출하를 않는다는 방침하에 구체적인 안을 세우고 또 하나하나 문제들을 다져나가기로 했던 것이다.

오늘은 그 후문과 관련하여 필자의 의견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일본양계협회는 지난 1월 24일 난가대책전문위원회를 열고 난가문제의 항구적인 대책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든지간에 협회의 조직이 강화됨으로써만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과 주로 조직강화 문제가 중심의제가 되어 양계인의 각 지방 양계협회(단체)에의 등록을 추진하는 동시 각 지방 양계협회의 현황과 난가에 대한 활동상황에 대하여 2월말까지 보고를 받아 그것을 토대로 재차 조직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당면한 문제중 난가저락에 있어서 액란 가공을 정부가 보다 활발히 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것과 동시 난용계의 사양수수도 전년(71년도)이하의 수준으로 조정하고 성계에 있어서도 10%의 도태를 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 지방 소비에 있어서도 더 신장시킬 여지가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밖에 협정난가(필자 나름으로의 명칭을 붙여 보았는데 출하전에 생산자들 간에 난가를 상의하여 출하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다)는 금년도 각 지방 마다 실행한다는 것과, 군마현(群馬

縣)이 제창하고 일본 양계협회도 정면적으로 밀고 있는 계란 지치출하운동에 대하여도 실현을 위하여서는 자금이 필요하며 이 자금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했으며,

특히 군마현으로부터 “계란지치출하운동 실현의 대응책에 관한 요망”이 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이는 상기한 지치출하운동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사항으로 6개항목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1. 조직의 강화충실—생산자 조직의 강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1,000수 이상의 사양가 25,000명의 명부작성과 적극적인 계몽운동의 전개와 정보 및 교육활동의 강화를 도모한다.
2. 운동자금의 확보—당면한 목표를 3억원으로 한다.
 - 가. 채란업자 2억 7천만원
(1수당 3원×9,000만수)
 - 나. 종계부화업자 3천만원
(1수당 10원×300만수)
3. 생산지의 출하조정 기능의 강화—계란조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로서 산지에 액란가공 시설을 정부에서 조정토록 한다. 더욱이 액란의 냉동보관과 활란(割卵)시설을 병설한다.
4. 액란의 정부(사업단)매상조치의 실현—식량부족국에의 연불 수출과 국내 아동 급식에의 공급을 추진한다.
5. 사양수수 등록 제도—등록 부화장 제도의 활용에 의하여 증산 규제를 행정적인 조치를 통하여 강구한다.

6. 뉴-켓슬 백신의 가격협정—국가가 개재하여 생산조정을 하여 가격인상을 피한다는 것은 양계 농가의 생산비를 인상한다는 결과가 되므로 절대 반대한다.

—대략 상술한 것과 같이 군마현의 이 제안은 지금까지의 지치출하운동이 단순한 슬로간적인 것에 반하여 다소 문제점은 내포되어 있지만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한 것으로서 운동자금의 확보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나머지 항목에 관하여는 제안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한다.

이렇듯 그들은 작년도의 불황으로 인하여 받았던 타격을 잊지 않고 즉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안간힘을 써 가며 끈질기게 도전을 하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면으로 더듬어 보고자 한다. 일본농림의 통제에 의하면 전년도 보다 약 10% 정도의 사양수수가 감소되었다고 하나 난가는 여전히 침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는 육성율의 저하를 보완하기 위하여 7,8월의 저난가시기에 대형 양계장이 다투어 강제환우를 실시하여 2년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양수수에 있어는 실질적인 감소가 되지 않았다는 설과, 달러 속크로 인한 불황 무드로 소비자의 구매력의 감퇴, 수입액란의 압박, 마택 생백신주사 실시와 더불어 육성율 상승에 의한 성계 수수의 증가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으나 이상 이외에 동북(東北), 북육(北陸), 남구주(南九州)등 외지에 기업자본으로 대형양계를 이룩해 놓은 신흥양계지대의 생산이 본 궤도에 올라 여기서 생산되는 계란이 현지 소비가 되지 않고 동경시장으로 집중되어 동경시장을 압박하고 교란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사실 사양수수는 통계상으로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경시장으로의 홍수 출하가 시세를 눌러 버려 이것이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저시세의 현상을 빚었다고 본다면 오늘날의 난가형성에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

경중심시세의 폐해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불황의 최대원인이 난가형성이 지니고 있는 모순점 보다 오히려 생산과잉에 있고 일본에서 현재 추진중인 지치운동이 원가존중주의로 난가가 결정된다면 지금과 같이 생산을 그 어떤 규제도 통제도 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는 당장에 생산이 배증하고 계란의 홍수현상이 일어나 시장유통계에 쏟아져 나와 시세는 수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된다.

어쨌든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된다면 다 같이 합심해서 해보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가격형성에 있어서는 비단 계란 뿐아니라 농산물 전반적으로 공통된 점은 시장중심제도를 타파하고 생산과 판매의 일관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닐 뿐더러 더욱이 스스로가 부닥치는 문제는 적정량을 생산하는 것과 판매 루—트를 정비하고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때 생산자는 가격형성에 참여가 될 수 있지만 전기한 생산조절, 판매개척 역시 우리 스스로가 해야한다는 무거운 짐이 지워지는 것을 양계인 자자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양계가 일에 앞서서 먼저 부닥친 양계인의 조직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을 본다. 조직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연구하며 우리도 늦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조직을 강화하며 전국의 양계인들이 다 같이 안고있는 부조리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새마을 가꾸기 운동도 이런 조직적 협동심의 양양에 그 목적을 둔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우리 양계업계도 우리나라의 새마을을 가꾸기 위한 구체적인 운동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며 모든 기관, 단체, 업체 그리고 개개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화를 이루어 보다 안정된 양계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